

국민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님!

현대사업단의 갑질과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1. 불법계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단 1명의 조합원도 동의한 적 없는, 해임에 몰린 전임 조합장이 해임 발의날에 조합원 몰래 날인한 자그마치 5,20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계약을 인정하라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3. 신용불량자 사태가 발생합니다.

현대사업단의 불법적인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니, 사업비와 이주비 대출의 지급보증 중단을 통보하여, 6천여 조합원은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일반분양이 지연됩니다.

6천여 조합원은 빠른 일반분양을 통해 주택공급에 일조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사업단의 '일방적 강요'가 아닌 '협조'가 절실 합니다.
'빠른 4천8백세대 일반분양' 6천조합원 모두가 원하는 바입니다.

4. 깡깡이 공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조3천억짜리 공사의 내역서와 변변한 일정표를 받아본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내역서와 공정표의 지속적 제출요구에도 현대사업단은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 일동

현대사업단의 갑질과 횡포는 인터넷홈페이지 '둔촌주공.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